

본각의 두 가지 모습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시각(始覺)이 완성되면 무념의 경지를 얻어 본각에 일치된다는 것이 기신론의 주장이다. 무념(無念)을 얻었을 때 유념(有念)의 생(生), 주(住), 이(異), 멸(滅) 사상(四相)을 안다는 것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 꿈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무념의 지혜를 얻어야만 망념의 정체를 안다는 것이다.

비록 중생이 오염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본각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탁월한 기능이 나타난다. 하나는 밝고 깨끗한 본성 그대로의 지혜의 모습이 수행을 통한 법력으로 생명이 야기되는 심식(心識)의 상태를 얽고 망념이 계속되는 것이 끊어져 본래정경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속적 생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수행의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여 행동화될 때 나타나게 된다. 중생의 본래 청정한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이 본래 깨끗하여 물체를 비출 수 있는 것이 '지정상(智淨相)'이며, 먼지가 끼었을 경우 이를 털어내고 닦는 것이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이다.

일체 마음에 생명이 일어난 심식의 상태는 비록 무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무명의 상태가 깨달음의 본성을 떠나지 않아서 부수어지지 않으며 동시에 부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 하였다. 바다의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 같이 먼지가 끼면 보이지 않듯이 번뇌, 본각의 비춤을 숨긴다

물이 파도가 되어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물과 파도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람이 없으면 파도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물은 본래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바람이 그치면 파도는 없어지지만 적셔주는 물의 수분성질은 파괴되지 않는다. 이처럼 중생의 자성정정성이 무명의 바람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 마음과 무명

이 둘 다 독립된 형상이 없어서 서로 떨어지지 않지만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명이 없어지면 마음이 움직이는 상속이 없어질지언정 지혜의 성품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심식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의 의식활동은 각성(覺性)이 본래 지니고 있던 지혜로운 모습(智淨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의식활동이 본래의 지혜로운 상태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중생의 본래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무명의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나 깨끗하고 맑은 마음과 무명의 바람이 서로 각각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얽혀있을 뿐 관계 이전의 깨끗하고 맑은 지혜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각의 지혜로운 모습이다.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활동의 모습은 깨끗한 지혜의 모습이 일으키는 작용이다. 다시 말해 지정상(智淨相)은 체(體)요 부사의업상(不思議業相)은 용(用)이다. 체는 근본지(根本智)에 갖추어진 자리(自利)가 되고 용은 후득지(後得智)로 이타(利他)의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마치 하늘의 달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는 어두워 나타나지 않지만 구름이 없어지면 밝게 비치게 되고 또 지상에

있는 강물마다 달그림자기 비치어 수월(水月)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체는 부처님의 법신(法身)인 자수용신(自受用身)이 되고, 용은 응신(應身)인 타수용신(他受用身)이 된다. 체에서 용이 나와 창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든 현실적 상황의 전개,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

본각을 수염본각(隨染本覺)과 성정본각(性淨本覺)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수염본각 곧 오염된 환경 속에서는 본각의 기능과 작용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 성품이 깨끗한 본래의 깨달음이 네 가지 거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깨달음 그 자체의 모습은 네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다. 허공처럼 크며 마치 깨끗한 거울과 같다.”

각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대로 공한 면을 거울로 비유하고(如實空鏡) 원인에서 혼숙되는 면을 거울(因薰習鏡)에 비유했다. 그리고 제법의 속박을 벗어난 난 면을 거울에 비유하고(法出離鏡) 또 조건에서 혼숙되는 면을 거울에 비유했다.(緣薰習鏡)

이러한 네 가지 비유는 결국 중생의 마음이 거울과 같다는 말이다. 다만 거울에 먼지가 끼면 비추는 성능이 발휘되지 않듯이 번뇌가 있으면 성정본각의 거울도 비춤이 숨어버린다는 것이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돌이 아닌 하나

산에 살면 바다가 그림고 바다에 살면 산이 그리워진다. 더운 나라에 살면 추운 나라에 가고 싶고 추운 나라에 살면 더운 나라에 가고 싶다. 홀수일 때는 짝수가 행복해 보이고 짝수일 때는 홀수가 편안해 보인다.

겨울에는 여름 바캉스를 떠올리고 여름에는 겨울의 스키장 풍경을 머리에 담는다. 사람은 누구나 불만과 권태를 느끼며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다.

누구에게나 바람 기운이 본능적 욕구로 남아있어 머물지 않고 떠나려 한다. 만족은 언제나 몇 걸음 앞에 있고 험담과 흔들림 속에서 사람의 키는 저라 상대적 빈곤 속에서 끊임 없이 방황한다.

성경에도 박혀 있던 양(羊)이 아흔 아홉 마리에 이르렀는데도 한 마리를 더하여 백 마리를 채우려 한다. 먹거리와 짝짓기와 잠에 대한 본능만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 남긴다는 세 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를 죽기 전에 살아서 그것도 하루에 몇 차례 틈 날 때 마다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가족이 평화로워야 이웃과 사회가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종교와 신앙도 사람의 행복, 자유, 평화의 지킴이 역할에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수행이란 내려놓는 것, 비우고 버리는 것, 마음을 모아 간절함으로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으로 정의의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나 게으름 없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요 나의 존재가 선택된 승리자이며 오늘의 참 주인공임을 깊이 자각해 뚜렷하고 당당하게 주먹나팔이라도 불며 자신 충만하게 살 일이다.

산에 살더라도 바람소리를 파도소리도 알고 바다에 살더라도 바다의 고

행복과 불행, 속박과 자유는 '不二' 먼저 용서 · 배려해야 평화 찾아온다

욕구가 아니다. 티내고 뽀내고 으스스 대며 우쭐해하는 치졸함, 상대를 무시하고 폄하하며 깎아내리는 고질병, 꾸미고 조작하며 돋보이려하는 이중성, 시기와 질투, 음해와 음험함,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누구나 빛과 어둠사이에서 윤회를 거듭한다. 천사와 악마는 결코 돌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킬과 하이드가 돌이 아닌 한 몸이듯이.

사람은 동물이다. 다만 웃을 줄 알고, 낯을 줄 알며 법과 질서, 예의를 존중하는, 글씨와 언어로 소통하고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앞부분에서 이미 밝혔듯이 빛과 어둠은 둘인 듯 보이지만 돌이 아닌 하나이다. 행복과 불행, 속박과 자유, 다름과 화해도 공명이 실현되면 돌이 아닌 하나이다.

대화의 단절이 사람사이에 벽을 만들고 이해의 결핍에서 다름이 비롯되는 것이다. 입장 바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다.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면 불행이 행복이 되는 것이다.

요함을 산속의 고요함으로 마음 바꾸며 살 일이다. 지나고 보면 세상이 온갖 일이 부질없는 허무의 그림자임을 누구나 느낄 것이다. 토라지고 등 돌리며 미워했던 일이 지나고 보면 배암의 허물처럼 부끄러움으로 남게 된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빛과 행복, 자유를 불러온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살아서 남기고 또 건네야 하는 생활언어인 것이다. 살다보면 미운 사람 한 명쯤은 언제든 어느 곳이든 끼어있기 마련이다. 다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색안경을 벗고 보면 누구나 나의 형제지매요 이웃사촌이다. 욕하는 것도 버릇이지만 칭찬하는 것도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나타나고 행복과 만족은 느낌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남도 좋아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다함없는 행복과 자유,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며 칭찬하고 배려해야 한다. 내가 그 누구의 것일 수 없듯, 그 누구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大衆, 조화로운 소리가 모인 곳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⑦ 바라밀의 의미

此是智者說 施能到彼岸 (차시지자설 시능도피안) 若一到彼岸 諸度悉具足 (약일도피안 제도실구족) 波羅蜜義者 名為和集聲 (바라밀의자 명위화집성) 譬如多人處 名之為大眾 (비여다인처 명지위대중) 菩提之種子 能成大智果 (보리지종자 능成大지과) 一切眾事具 莫不由施成 (일체중사구 막불유시성)

번역 이것은 지혜로운 이의 설법이거니와, 보시는 능히 저 언덕에 이르러 하며, 만약 한 번 저 언덕에 이르면, 모든 법을 만

족하게 갖추게 됩니다. 바라밀(波羅蜜)의 의미는 이룸하여 조화로운 소리가 모였다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이룸하여 대중(大衆)이라고 합니다.

보리의 종자는 능히 큰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하나니, 일체의 대중이 섬기는 마음만 갖추어지면, 보시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설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일러 도피안(到彼岸)이라고 하거니와, 바라밀(波羅蜜)을 의미한다. <법집요승경(法集要頌經)> 유위품(有爲品)에는 산스트리트어로 파라가(para-ga)라고 발음되고, 파라미따(pāramitā)라고도 한다. 한역하

여 바라밀다(波羅密多)로 읽는다. 따라서 예불 때마다 독송하는 <반야바라밀다심경>이 바로 '피안(彼岸)에 이르는 지혜의 핵심을 담은 경' 라는 뜻이다.

그런데, 제마보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바라밀(波羅密)'을 '조화로운 소리가 모인 곳'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의 반야바라밀의 의미는 '응당 두 가지 모습으로 살피지 않는 것이다(般若波羅蜜義者：不應以二相觀)'라고 하였다. 즉 이분법적인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간략히 풀어 설명하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나오는 것도 아니며, 들어오는 것도 아니며,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더러운 것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아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며,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다. 머무는 것도 아니며, 머물지 않는 것도 아니다. 실재하는 것도 아니며, 실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합하는 것도 아니

고, 흠어지는 것도 아니다... 법도 아니며,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등등(非有相非無相, 不入不出, 不增不損, 不垢不淨, 不生不滅, 不取不捨, 不住非不住, 非實非虛, 非合非散, 非著非不著, 非因非不因, 非法非不法, 非如非不如, 非實際非不實際)'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념을 벗어난 소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제마보살은 '바라밀'이라고 해석하였고, '조화로운 소리가 모인 곳'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하여 조화로운 소리는 곧 지혜의 종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혜의 종자를 갖춘 일체의 대중이 모이고, 일체의 대중이 섬기는 마음만 낸다면 온 세상에 보시를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강변하는 것이다.

보시야말로 저 언덕에 이르는 진정한 지혜며, 모든 법을 만족하게 갖추는 길이 라고 말한다. 지혜로운 부처님이 온갖 법문을 설하신 대의(大義)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이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인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르스님 "석문의법" 특강이 있습니다.
-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16년 3월 2일 수요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 ◆출기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평대학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평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부터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16년 3월 3일 목요일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3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 · 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오후 2시 ~ 3시 10분)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나비춤 -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랑계작법 바라춤 - 오집바라, 관육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오후 3시 30분 ~ 5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록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3월 9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록재 보존회

부설 한국 불교 예술 대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 (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중 http://www.samgyeojong.org